

## 여러분의 몫입니다.

### 이중 구속

저는 뮤직 비디오 시상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올 해에는 브루클린에 새로 세워진 바클리 센터에서 시상식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수의 공연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넘쳐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 가수에 대한 비난은 즉각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비디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평이 나온지 몇 일 지난 후에, 저는 그 공연에는 남자 가수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빗발치는 비난이 왜 여성에게만 쏟아진 것일까요? 그 두 사람 중에 여자 가수가 더 주목받는 인기 스타이기 때문에, 그녀 혼자 비난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저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여성들에 대한 이중 구속이 생각났습니다. 무례, 강간, 혼외 출생아, 사회 제도의 붕괴, 심지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일부 남성들의 행동 조차도 여성들의 복장과 경박성, 품행 탓으로 책임을 돌립니다. 교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여성들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성폭력범으로 밝혀진 학생들 보다도 더욱 가혹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오하이오 주의 스투벤빌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의 경우는 성폭력에 가담했던 남학생들이 운동 선수로서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이 만연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경찰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법의학적 증거들이 들어 있는 “강간죄 관련 증거물 상자”를 분석하는 비용을 피해자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또 어떤 주에서는, 강간으로 아이가 출생하면 강간범이 친권을 갖게 됩니다. 강간범은 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강간범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성적 대상이나 문명의 유일한 가치로 여겨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이 사안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 매체에 여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다룰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성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주의 법을 살펴보고,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실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여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 기관들, 정부들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남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보셨을 때 땅에 쓰신 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의 정죄에 가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녀를 보내주셨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아들과 손자, 조카, 조카의 아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을 돌보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국내 선교기관은 강간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이후 또다시 의료 또는 사법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치유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처소를 찾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무 헤리엇 올슨